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일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8256 구속사역에 관한 진리의 합당한 지식.....	4
인간의 원죄와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	6
4551 왜 질문을 하는가? (인류학자 쾰른) 천사들의 타락. 죄.....	6
5967 유전된 죄.....	7
7800 이 땅의 성장 과정.....	10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	13
6481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13
8606 하나님은 창조물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	14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7
8263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17
8537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19
인간이 되신 하나님.....	22
7147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22
8250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2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	25
6985 예수의 영적인 사명.....	25
7577 고난의 금요일.....	26
7668 다 이루었다.....	28
구원 역사를 인정하는 일.....	30
3642 혼의 성장에 구속역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일.....	30
7156 구속역사의 중요성을 생각하라.....	31
의식적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일.....	33
7717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33
9010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34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36
7940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가는 일.....	36
8045 생명력 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	37
8365 종말의 때의 대적자의 공격.....	39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지가 강하게 되는 일.....	41
7035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강한 의지를 얻는 일. 의지의 평가.....	41
8468 예수님만이 의지를 강하게 해줄 수 있다.....	42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	45
5844 인정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45
6670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은혜를 활용하는 일.....	46
6579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47
7216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49
저세상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일.....	51
8036 예수 그리스도 없이 빛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51
5929 지옥으로부터 구원. 십자가 형체의 빛의 광선.....	52
6797 모든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한다.....	53
7572 예수님께 도피.....	54

구속사역에 관한 진리의 합당한 지식.

B.D. No. 8256

1962년 8월 29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너희에게 올바르게 다시 말해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하면, 사람들 편에서 전해진 지식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는 모든 사람에게 거부하던 너희가 더 이상 거절하려는 생각 가운데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먼저 왜 예수의 구속사역이 필요한지 무엇이 예수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이 땅의 고난의 길을 가게 했는지 알아야만 한다. 그들은 예수가 무엇으로부터 구속하기를 원하였는지 알아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비록 이 땅의 자신의 삶에 항상 선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큰 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전설처럼 여기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큰 원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에 관해 알지 못해 그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믿을만 하게 만들 수 없다.

죄가 예수의 구속사역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비록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이웃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지었다 하면 그들 스스로 죄값을 치렀어야만 했을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 한 사람이 이렇게 끔찍하게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죄가 아주 큰 죄이어서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댓가를 치를 수 없는 원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 원죄는 한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들이 타락한 가장 밝은 깨달음 가운데 범한 하나님을 직접 거절한 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구속사역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라도 그들이 구속사역의 원인에 관해 인간 예수가 성취시키려고 했던 사명의 관해 가장 완전한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그들이 원래의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과정에 대해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 스스로 이런 타락한 원래의 영들이었고 하나님께 귀한 하

는 과정에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을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해야만 함을 가르침을 받으면, 믿는 것이 그들에게 쉬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이해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한다. 그들은 아직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력 있게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그들에게 믿을만 하게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순수한 진리만이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순수한 진리를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왜냐면 비록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는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 단지 그들이 반박하려고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배워 얻은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소개해주는 단지 하나님 자신만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통해 선물해줄 수 있는 지식을 전하는 순수한 진리가 전해지면, 그들은 내적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이다. 왜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단지 그에게만 자신의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영적인 과정이 알려져 있다. 단지 그 만이 그로부터 타락한 일과 예수의 구속사역의 원인을 안다. 단지 그 만이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인도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예수 안에서 이 땅에 거할 때 약속한 것처럼 이 약속을 실행하고 있다.

진리의 합당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전에는 그들이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했던 그들의 십자가의 길을 자유의지로 의식적으로 갈 것이다. 사람은 단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진리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어두움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밝은 빛을 갈망하는 자에게 밝은 빛이 밝혀준다.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단지 순수한 진리만이 나온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그의 말씀은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믿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왜 질문을 하는가? (인류학자 쾰른) 천사들의 타락. 죄.

B.D. No. 4551

1949년 1월 28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역사하게 만든 원인은 인간에게 영원히 헤아릴 수 없게 때문이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이성)은 하나님의 힘의 발산의 동기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또한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왜냐면 모든 볼 수 있는 창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들의 영역에서 한때 일어난 일의 결과로 비로소 창조된 것이고, 영의 나라를 단지 약한 흥내를 낸 것뿐이고, 영의 나라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고, 단지 존재했던 영의 나라에서 원래 초기에 일어난 일의 영향을 사람이 단지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영들은 하나님의 힘의 가장 순수한 발산이었고, 결과적으로 영들은 또한 권세와 힘이 충만했고, 가장 높은 온전함을 가졌다.

하나님의 조성하려는 의지가 또한 그의 피조물에게 전가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서 실행하도록 촉구했고, 결과적으로 헤아릴 수 없게 큰 창조하려는 의지가 존재 안에 있었고, 이제 제한없이 활동했다. 즉 기대 이상으로 창조물들을 창조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창조물들은 항상 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은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첫 번째 존재는 빛과 능력을 넘치게 받았다. 그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왔고,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행복했다. 그의 창조물은 증가했고, 그의 축복이 측량할 수 없게 증가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를 시험했다. 왜냐면 하나님은 이 존재인 루시퍼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의 소유자로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시험은 루시퍼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리는 일이었다. 이로써 루시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힘을 받는 것을 의식하고, 이 힘으로 자신의 창조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식해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힘의 원천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축복은 영원히 무한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시험은 단지 이를 인정하도록 그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창조된 존재인 그가 자신을 스스로 완전한 존재로 끌어 올리도록,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써 그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자신의 권세와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는 실패했고, 그는 힘을 받는 자가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다. 그에게 주어진 충만한 힘이 그에게 충분한 증거로 보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그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불가능할지라도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사용하여 그의 뜻을 통해 무수히 많은 존재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엄청난 권세와 힘을 지닌 창조주로 느꼈고, 교만과 지배욕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했다. 그는 죄를 지었고, 이제 아직 죄가 없었지만, 전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준 루시퍼의 영향아래 있는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죄로 이끌었다.

하나님은 이제 피조물들에게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주었다. 그들은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온전함으로 그들의 출처를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 존재는 단지 소수에 불과했다. 그들의 의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하는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천사로서 계속하여 하나님 곁에 머물며 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타락했고, 그들의 생산자에게 속하게 되었고, 자신이 동인이 되어 생산자의 뜻을 따랐다. 이로써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움의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깨달음을 빼앗겼다. 왜냐면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힘의 효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공적인 길로 깨달은 길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 이 길은 이 땅의 물질적 창조물을 통과하는 길이다. 물질적인 창조물은 한때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의 귀환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생성되게 한 것이다. 물질적인 창조물을 통해 영적인 존재의 의지가 묶이게 된다. 즉 영적인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돌려주고, 영적인 존재가 다시 속하기 원하는 대상을 택하는 결정에 직면하게 되기까지 영적인 존재는 의무의 단계 아래서 서서히 성장해나가는 성장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존재는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존재는 그가 한때 거절했던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면서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사랑을 행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식적인 요구하는 일을 통해 이 힘을 얻어야만 한다. 이 땅의 삶에서 자유의지가 올바른 사용되어야만 한다. 존재는 다시 하나님께 향해야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요 창조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존재가 다시 빛 상태로 들어가고, 빛을 받는 존재가 되고, 이로써 존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인 자신이 뜻에 따라 일할 수 있게 된다. 존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로써 영원히 축복되게 될 것이다.

아멘

유전된 죄.

B.D. No. 5967

1954년 5월 29일

너희가 대답 받기 원하는 질문이 항상 너희 안에서 떠올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고, 너희가 긴밀한 기도를 드린 후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줄 수 있다. 이 가운데 너희가 영의 음성을 통한 내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면, 이제 떠오르는 생각을 내 응답으로 간주해야 한다. 너희의 갈망과 나를 향한 부름이 너희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일을 보장한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너희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없이는 너희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헛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없이는 너희가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세력들이 너희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진리의 제공자인 나를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다음 말을 해줘야 한다: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에게 항상 단지 비유를 통해 설명해줄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의 끝 없는 깊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너희는 내 역사와 통치의 이유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온전하지 못함이 부족한 깨달음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이성의 능력으

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의 나라에서 내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번개 같은 속도로 설명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 이 땅에서 너희는 비유를 통해 설명을 받아야만 하고, 단지 너희의 이해할 능력에 따라 너희에게 내 창조물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묘사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또한 영적인 과정들은 단지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첫 번째 사람의 심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과정은 단지 연약한 비유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의 영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에 묶여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 전에 타락한 일을 통해 잃어버린 완전한 자유를 먼저 이 땅의 삶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의지에 제한을 가했다. 왜냐면 내가 그들이 처음으로 한 권세 아래 종속되어 있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처음에는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일이 그들을 생성되게 한 나에게 반역한 첫 번째 죄이다. 단지 자유의지로 인정하는 일이 첫 번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내가 모든 창조물을 생성되게 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에 도달하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최초의 사람들은 나를 실제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깨닫도록 강요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결정을 내려야만 했고, 자유의지가 "유혹" 가운데 자신을 다시 입증해야 했다. (1954년 5월 28일)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이 갈망하는 것으로 집중해야만 했고, 금지와 유혹이 동시에 자발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야만 했다. 그러나 당연히 유혹은 약속으로 끌어드리려는 일과 연관되어야 하고, 그들이 이제 저항해야 한다.

금지과 유혹은 양측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면 타락한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일과 내 대적자에게 머무는 일이기 때문이고, 내가 창조한 존재가 목표에 도달하거나 또는 깊은 곳으로 새롭게 타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욕망이 주어져야만 하고, 사람에게 또한 이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만 하거나 또는 훨씬 더 높은 목표이고 이 땅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일보다 천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와 함께 하는 영원한 축복을 위해 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만 한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의 회복은 나와 내 대적자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대적자도 또한 영적인 존재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져야만 한다. 대적자는 속이는 가짜 재물과 가짜 행복으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영원히 축복된 삶을 잃게 한다. 나는 이런 유혹을 알았고 그러므로 내가 최초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계명을 주었다. 이런 경고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 안의 모든 욕망을 억누르게 하기에 충분해야만 했다. 내 대적자는 내 경고와는 반대로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최고의 권세로 깨달았지만 그러나 거짓을 따랐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의 욕망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그들이 욕망에 굴복하게 했는가? 그들은 낙원에서 축복된 삶을 살았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었고, 모든 것이 그들의 의지 아래 있었고, 그들은 전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가운데 행복하게 느꼈다. 긴밀한 사랑은 또한 최초의 창조된 사람들을 연결시켰고, 이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이미 내 대적자의 속박으로부터 자신

을 구원할 수 있었다. 이런 사랑이 나와 동역자에게 향한 동안에는 의지의 시험에 실패할 위험이 없었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이런 사랑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면서 이런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바꾸었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축복을 얻으려는 욕망을 불타오르게 했다. 그들의 사랑이 요구하고 이기적이고 낮은 차원의 사랑이 되었고, 이로써 그들이 자유롭게 되어야 하고, 그들이 그들의 욕망보다 내 계명을 더 높게 여겼더라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존재의 권세에게 그들 자신을 드렸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첫 인간 부부를 축복하기 원했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러므로 첫 인간 부부가 죄를 지었다. 내 창조 계획을 따르는 어떤 일에도 죄가 없고, 법적인 질서를 따라 일어나는 일에 죄가 없고, 출산 과정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에 어긋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려는 의지가 없이 감각의 만족시키는 일은 신적인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내 대적자가 타오르게 한 자기 사랑이고, 사람들을 끌어 내려 전적으로 대적자의 권세 아래 빠지게 한다.

최초의 사람들이 이런 거짓 사랑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런 거짓 사랑이 죄였다. 이 죄는 스스로 자신을 높인 원죄를 다시 상기시켜 준다. 이 죄는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죄이다. 이런 죄는 그들을 생성되게 한 자로부터 유전된 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통점이 없는 죄이다. (1954년 5월 29일)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 심장 안에 불씨로써 놓여 있고 가장 큰 화염으로 타오를 수 있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목표였고 목표인 이런 사랑을 뒤집는 일을 내 대적자가 성공시켰다.

순수하고 신적인 것이 불순하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단지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다. 이런 사랑이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번식하는 일이 또한 수많은 혼들이 내 대적자에게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일에 베푸는 신적인 사랑과 행복하게 되는 일이 최정점에 달해야 하는 번식하는 일이 내 축복 아래 일어났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은 순수하지 못한 이기적인 사랑을 위한 순수한 신적인 사랑을 잃게 된 일이다.

사람 안의 하나님의 불씨는 사탄의 영향으로 꺼졌고 대신에 모든 고귀하고 순수한 것들을 희생시키는 불이 타올랐다. 감각이 자극을 받아 가장 높은 욕망이 되게 했다. 이런 일은 내 창조의 역사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대적자와 내 피조물의 자유의지 때문에 방해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는 일이 여전히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타락은 번식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자극하고 자유의지로 불을 붙인 그릇되고 죄악된 사랑이었다. 신적인 의미에서 행복하게 하는 창조의 역사가 불결한 영들의 놀이로 변질되었다. 내 대적자가 나 자신이 내 축복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원했던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역사는 그들 안에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하기 위한 역사이고, 이로써 이제 이 사랑이 생성된 존재에게 흘러가야 하고, 이를 통해 항상 밝은 사랑의 빛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나에게 돌아 오는 길을 찾고 짧은 시간 안에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인류가 나오게 했을 역사이다. 왜냐면 사랑이 발산되는 곳에서 나를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간은 이 의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인간의 혼을 얻기 위해 내 대적자와 싸웠기 때문에, 대적자가 자신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을 사용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왜냐면 이 일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내 피조물이 귀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피조물은 실패했고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속죄하고 그들을 위해 다시 위로 향하는 길을 만들 때까지 더 이상 스스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그러나 사랑이 내 대적자와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왔고, 이 사랑은 나를 떠나 타락한 마지막 존재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땅의 성장 과정.

B.D. No. 7800

1961년 1월 21일

이 땅이 창조 되었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입자들이 이 땅의 창조물 안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서히 높은 곳을 향한 그들의 성장 과정을 간다. 왜냐면 창조물들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 안에 아직 꺾이지 않고 남아 있는 그러나 서로 다른 세기를 가진 저항에 알맞았기 때문이다. 창조물들은 크거나 적게 굳은 물질이다.

왜냐면 땅도 언젠가 사람이 거할 수 있게 성장 과정을 이미 거쳐 모든 입자들이 다 모여 자유의지와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다시 돌려받기까지 서서히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이런 상태에 들어설 수 있기까지 끝 없이 긴 시간이 흐른다.

이 땅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창조물들을 생성시키기 위해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이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이미 거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단계가 마지막 성장 단계이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제 성장 과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언젠가 끝없는 과정을 돌아보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상태인 그에게서 이런 기억을 빼앗아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이제 인간으로써 완성해야 할 자유의지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그의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관찰하면 그러면 그는 이 창조물들이 어떤 목적을 성취해야 하는 지에 관해 생각하게 되고 그의 심장 안에 설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에게 이런 지식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는 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창조주의 성품을 알아보려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창조주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원해야 한다. 이런 설명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땅의 삶은 그가 한 때 자유의지로 끊었던 하나님과 연결을 다시 이루기 위한 것이다. 왜냐면 영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일은 영들의 타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귀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연결을 다시 이뤄야만 한다. 그들의 이 땅의 과정의 목표는 성취 된다. 너희 사람들은 창조물들이 타락한 존재들이 다시 귀환하는 일의 큰 부분을 기여했다는 것을 너희가 이런 귀환을 이룬 후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든 그의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가장 작은 혼의 입자로서 창조 작품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빼앗지 않았으면, 너희가 높은 곳에 도달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는 너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의 소유였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깊은 곳까지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써 전적으로 능력과 빛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귀환하는 길을 가는 일은 불가능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너희에게 능가할 수 없는 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창조를 한 모든 자신의 창조물들을 통해 영적인 존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여 심김을 통해 항상 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귀환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

타락한 원래의 영에 속해 있던 영적인 입자들이 다시 모여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가운데 인간으로써 마지막 형체를 입는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고 그러나 자유의지로 사랑으로 다시 섬겨야만 한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그들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로써 영의 나라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써 육신을 입은 모든 혼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영화되는 일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한다. 왜냐면 한때 지은 원죄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고 항상 또 다시 짓누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따랐기 때문이다. 타락한 원래의 영인 사람은 만약에 그에게 확실한 도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모든 타락한 존재들의 죄짐을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 용서해주기 위해 육신을 입었다. 만약에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원래의 영들이 한때 인정하는데 실패했던 예수를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하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한 그의 죄의 전적인 용서와 구속은 확실하다.

이로써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알아야만 하는 구속사역의 원인과 이유에 관한 짧은 설명을 해주었다. 너희가 항상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실행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너희가 알아야만 하는 것에 관해 짧은 설명을 해주었다. 왜냐면 그가 모든 존재들을 창조할 때 세운 목표에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B.D. No. 6481

1956년 2월 20일

너희가 너희의 존재와 너희를 존재하게 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여긴다. 너희는 너희의 존재를 의지하고 분의 뜻에 의해 인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삶을 형성할 능력이 없고 또한 너희의 삶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한 권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또는 너희가 이 권세를 거부하면, 너희가 자연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법을 거부하는 것을 안다.

너희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받아드려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한 존재를 입법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너희는 너희가 존재하는 목적이나 사명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아직 대적자의 생각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언젠가 자신의 창조주를 떠났고 유일하게 스스로 자신이 역사하고 정하는 존재로 자신을 이런 잘못 된 생각으로 생성되게 한 모든 존재들 앞에 내세웠다. 너희는 그에 의해 창조 된 존재이고 너희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희는 또한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너희 안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그에게 충만했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만들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루시퍼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오만하게 자신의 힘을 키우고 게다가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므로 너희 생각도 또한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고 영이 가장 어두운 상태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일이 너희를 항상 더 오만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지식은 전혀 무가치한 지식이고 죽음의 순간에 너희에게서 사라지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한 권세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그는 또한 그가 죽은 후에도 고립 된 채로 머물게 된다. 그러나 그는 계속 존재하고 그가 이 땅의 삶에서 잘못 영접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 그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 머물고 그가 이 땅의 삶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일을하기를 원할 때 자신이 단지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가진 세력이 아주 사람들을 소유하고 이런 세력은 단지 사람들의 잘못 된 생각을 강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간에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 된 존재와 아직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실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생성되어 나오게 했다. 이로써 존재가 한 존재로서 자신을 깨닫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이런 개인과 연결을 끊지 않았고 자신의 사랑의 힘을 끊임없이 그에게 부어주었고 그들이 사랑의 힘을 받는 동안에는 그들은 행복했다. 그러나 첫 번째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산을 거부하고 그가 이런 오만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발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고 믿었을 때 그가 동시에 하나님 자

신을 거부했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이 되어 이로써 불행하고 어두운 영이 되었다. 그러므로 신성을 부인하는 일은 항상 한때 하나님께 반역한 자를 따른다는 속일 수 없는 증거이다.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을 정하는 권세의 의지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증거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통해 그에게 아주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생각하도록 의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빛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준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유전 된 악인 자신의 영적 교만을 포기하고 그가 생각으로 겸손하게 작은 질문을 하면, 그는 반드시 답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오만하고 이런 오만함이 또한 그가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가 완전히 무지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정하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이런 접촉을 통해 그는 항상 또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내적으로 거절한다면, 그는 자신이 한때 가졌던 저항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중보 기도를 받지 못하면, 그는 저세상의 나라에서 설명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길은 아직 영원한 고향으로부터 끝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물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

B.D. No. 8606

1963년 9월 4일

너의 주변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사랑이 넘치게 충만하고 지혜로운 창조주를 증명해야 한다. 너희는 창조물을 단지 죽은 눈으로 바라본다. 너희는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너희는 게다가 각각의 창조물들의 목적과 사명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창조물들을 아주 자세하게 꿰뚫어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너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의 온전함을 깨닫지 못한다. 너희 스스로 창조 작품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모든 창조물이 무슨 목적을 실제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다. 너희 자신들은 창조물의 최고봉이다. 너희는 생명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를 의식하고 생각할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너희는 창조물을 너희의 의지에 따라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너희는 스스로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다. 너희는 연구해서 자연의 능력을 다스릴 수 있다. 너희는 진실로 창조물의 주인으로 여김 받기에 합당하다. 왜냐하면 창조물은 너희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이로써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창조물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 모든 창조물들 스스로 영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창조물을 만들어 낸 아주

큰 사랑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 이런 과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사랑과 지혜가 결정한 모든 것을 그의 권세가 실행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들의 과제는 한때 타락했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귀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반면에 너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단계에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마쳐야만 한다.

너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나 최고로 온전함 가운데 있는 한 존재인 한 분 창조주를 깨닫게 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 땅에서 최고로 발전 된 창조 작품이다. 창조주는 그 자신이 창조 했던 모든 것에 온전함을 전해야만 했다.

모든 그의 창조물들이 목적에 합당하게 창조 되었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존재여야만 한다. 너희가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의 존재는 사랑과 지혜 안에서 역사하는 자기를 인식하는 존재여야만 한다. 창조물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창조주를 생각하는 일은 그리고 그를 넘치게 온전한 분으로 인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만 너희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희에게 창조주를 증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지나쳐 버린다. 너희는 창조물이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탐구해볼 소원이 없다. 너희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본다. 너희는 창조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너희는 창조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해답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의 생각은 항상 또 다시 영적인 영역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왜냐면 생각하는 것도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항상 또 다시 너희는 생각하게 자극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영의 나라로부터 너희에게 흘러가는 생각의 파장에 둘러 쌓이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가장 큰 기적에 속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영접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귀환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이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너희는 잘 활용해야 한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주이면서 아버지인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생각을 그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왜냐면 존재들이 원초에 그의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의 주변의 창조물들이 사람들이 창조물들에 관해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면, 삶의 운명이 이루게 해야 한다. 비록 이 일이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께 향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그러면 목표에 도달하고 여기에 영의 나라에서 그의 축복이 달려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소멸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단지 적은 수이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도움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끔찍하게 될 것이다. 단지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원하면, 그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 깨닫게 강요할 수 없다.

왜냐면 그의 완성은 단지 자유의지를 통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권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는 이 권세와 연결되어야 하고 그에게 향하게 만들려고 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이 땅의 삶은 진실로 헛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그러나 모든 한때 타락했던 존재들이 거쳐야만 하는 귀환의 과정을 끝마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B.D. No. 8263

1962년 9월 3일

나는 내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그는 내 영원한 원래의 사랑에서 생성된 존재이다. 내가 원래 창조한 영들의 큰 무리가 나를 떠나 타락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사랑을 나에게 드렸고 비록 그가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나를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로 깨달았다. 그는 일회적인 역사를 통해 나를 떠나 타락한 자녀들을 나에게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면서 그의 아주 큰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기를 원했다. 그의 사랑이 이런 역사를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역사를 허용했고 내가 그가 이 땅으로 임하는 일에 동의했다. 그는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었던 빛의 나라를 떠나 최초의 타락한 존재였고 내 상극이 되어 나를 대적하는 영인 루시퍼의 나라인 어두운 영역으로 임했다.

나는 내 아들을 땅으로 보냈다. 그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한 곁형체로 섬기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하면 나는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돌아가는 길이 끊어졌고 그들은 끝없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나와 가장 멀리 떨어진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야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는 내 피조물이고 내 사랑과 권세와 첫번째로 창조된 존재인 루시퍼의 의지를 통해 생성된 존재들이다. 루시퍼는 원래 초기에 내 힘을 사용하여 피조물들을 생성되게 하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었다.

내가 내 형상으로 생성되게 한 원래 영이 타락하는 일을 실제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막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과 지혜로 타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권을 최종 목표로 전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지로 이런 목표를 이뤄야만 했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의 의지는 내 대적자의 영인 루시퍼의 영향으로 아주 약해져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도움은 의무단계로서 내 뜻대로 물질적인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후에도 존재들에게 전혀 힘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때 내 사랑의 힘을 거부했고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단지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 아주 큰 긍휼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길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그들 안에 사랑의 불씨를 넣어 주었다. 그럴지라도 엄청나게 큰 원죄의 죄짐이 남아 있었다.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에게 대적한 죄짐이 타락한 원래의 영들 각자에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죄짐은 신적인 공의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만 했고 이런 타락한 존재들이 스스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속죄가 이뤄져야만 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머물렀던 원래의 영이 땅에서 구속 역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하면 그의 나를 향한 사랑과 타락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강해서 이런 구속 역사가 요구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가 자원하여 짊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으

로서 이 땅의 과정을 가기를 원했고 인간의 겉형체인 예수 안에 육신을 입고 최고의 사랑이 필요한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 이 길이 또한 영원한 신성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왜냐면 나는 단지 사랑이 있는 곳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사랑으로 나 자신과 연결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나는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으로 형성한 그릇을 내가 거할 그릇으로 택했다.

예수의 혼은 실제 나를 향한 사랑을 이 땅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탄생했을 때 그의 혼이 들어선 영역은 루시퍼의 나라였고 그의 혼은 루시퍼의 공격을 받았고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루시퍼의 일부였다. 그가 인간으로서 타락한 형제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또한 내 아들로써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루시퍼의 공격에 자신을 방어하고 떨쳐내기 위해 사용할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이웃들처럼 투쟁해야만 했고 사랑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그를 방해하려고 시도했고 그의 인간의 겉형체가 모든 유혹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고 이로써 자신 안의 사랑이 점점 더 강하게 되어 발산되어 그가 또한 자신의 육체의 겉형체도 영화시킬 때까지 그의 혼이 이에 대항해서 싸워야만 했고 이로써 그의 사랑의 빛은 항상 더욱 밝게 빛나고 대적자가 그가 행하는 일을 막기 원하는 일을 행할 때 까지 그의 혼이 이에 대항해서 싸워야만 했다. 대적자가 막기 원하는 일은 그가 사랑으로 초인적인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내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항하고 사랑으로 그를 물리치는 일이었고 그가 내 공의를 만족시키고 대적자가 더 이상 포로로 가둘 수 없는 혼들을 위해 구매 가격을 지불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를 충만하게 채운 사랑이 긍휼의 역사를 완성했다. 이 사랑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이런 어두움을 거쳐야만 했고 루시퍼의 나라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는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으로서 소유했던 자신의 빛과 힘을 뒤에 남겨 뒀어야만 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연약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가 사람들에게 나에게 돌아가는 길인 사랑과 고난의 길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 길은 인간 예수가 진실로 자신의 이웃보다 앞서 갔던 길이었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의 혼에 원죄가 없었고 그의 사랑이 그에게 그의 인간의 육체를 영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이 이 땅의 과정을 갔다. 왜냐면 사랑에 저항하는 일이 단지 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인간의 심장 안에 내 신적인 사랑의 불씨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랑에 불을 붙이고 최고의 화염으로 타오르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면 단지 의지의 연약함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너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런 일이 그가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얻은 은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의 긍휼의 역사가 너희에게 헛되지 않게 해야 하고 너희가 예수 안의 나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죄 짐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의 겉형체 안에 거했다.

아멘

순 수한 혼을 필요로 하는 사명 때문에 예수의 혼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기 위해 빛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임한 일에 관해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혼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단지 순수하고 죄가 없는 혼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어떤 말이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느냐? 창조물을 거치는 긴 성장 과정을 가야만 하고 부족한 상태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어야 하는 인간의 혼과는 반대로 예수의 혼은 타락하지 않은 혼이었다.

이 때문에 예수의 혼이 외부로부터 침범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과 말할 수 없이 대적하며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의 육체는 성숙하지 못한 물질이고 대적자의 영향으로 구속받지 못한 입자들로부터 심하게 공격을 받았고 육체는 모든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성숙하지 못한 육체의 입자가 붙어 있는 육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예수에게 요구했다.

예수의 혼은 전적으로 순수하게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이 그에게 달라붙었고 혼은 이들을 떨쳐 버려서는 안 되고 부드럽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했다. 외부로부터도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 예수에게 침범했고 환경이 예수의 혼에 역사했고 이로써 예수의 혼은 모든 내적인 싸움을 견뎌내야만 했다. 이런 내적인 싸움은 타락한 혼들도 견뎌내야만 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의 혼이 온전했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일은 쉬웠을 것으로 여기는 관점은 잘못 된 관점이고 정반대였다. 예수의 혼은 순수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환경 아래서 더 심한 고통을 당했고 그의 혼은 그를 대적하며 그에게 침범해오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를 통해 이웃이 그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에 대해 아주 민감했다.

빛의 혼이 거해야만 했던 어두움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럴지라도 그는 이런 최악 된 인류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했다. 모든 루시퍼적인 것들이 실제로 예수의 혼을 공격했다. 그러나 예수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일도 이를 수 없었다. 예수는 모든 시험을 견디어 냈고 그는 자신의 대적자에 대항해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항해 싸웠다.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사랑을 통해 인간 예수 자신의 육체의 악한 영들의 입자를 영화 시키는 일을 이뤘고 영원한 사랑 자신이 그를 소유하게 되었다. 영원한 사랑은 최악 된 혼에게는 그가 소멸되지 않게 하면서 절대로 자신을 나타낼 수 없다.

너희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온전하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임했다" 이고 "그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왔다" 가 아니다. 비록 루시퍼적인 존재들이 예수의 혼을 아주 크게 둘러싸지만 그러나 이런 존재들은 외부로부터 그의 혼에게 다가온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적했고 육체를 통해 그를 공격하거나 사탄의 보냄 받은 자로써 그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구속되지 못한 존재가 공격을 하던지 간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의도한대로 자신을 넘어지게 하지 않았다. 그의 순수한 혼은 저항을 했고 사탄적인 것을 물리쳤고 그는 자신의 육체에 성숙하지 못한 영적

인 존재들을 성숙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사랑의 역사를 완성하였을 때 육체가 영화 되어 혼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혼이 어두움의 나라에 들어선 것처럼 혼은 루시퍼의 세력 안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혼은 패배당하지 않고 루시퍼의 세력에게 저항했다. 왜냐면 혼은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 사랑이 혼에게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높은 곳으로부터 사랑을 가져왔고 사랑은 혼을 내어주지 않았고 혼은 영원한 사랑과 항상 더욱 하나가 되어 갔다. 이로써 이 땅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하나가 되는 일이 이뤄졌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큰 사랑과 아주 큰 고난과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통해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도 싸워야만 했고 이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고 이 불씨에 항상 양분을 제공하여 밝게 불타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 예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반면에 예수는 항상 단지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야 했고 이 사랑이 바로 자기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단지 죄가 없는 존재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는 절대로 그의 사랑을 거절했던 타락해 창조물을 거치는 성장 과정을 갔던 혼 안에 거할 수 없다. 왜냐면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원죄가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원죄가 먼저 사함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혼이 타락한 혼이었다면, 인간 예수의 혼은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구속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는 가장 큰 비밀이고 비밀로 머물게 될 것이다.

한 순수한 존재가 인간의 원죄를 위해 속죄를 완성해야만 했다. 왜냐면 타락한 존재는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고 스스로는 자신의 간수인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능력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빛의 혼이 대적자와 대항하는 싸움을 싸워야만 했고 예수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왜냐면 그의 능력이 사랑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에 관해 설명해줘야만 한다. 왜냐면 잘못 된 관점은 잘못 된 결과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루시퍼가 예수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에 대항해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모든 타락한 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아직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었고 타락한 혼이 대적자에 대항해 이긴 적이 한번도 없었고 구속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싸움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못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절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사랑의 불씨를 받았을지라도 이 불씨가 절대로 화염으로 불타오를 수 없었을 것이고 대적자가 타오르게 하는 일을 막았을 것이고 타락한 존재 자신이 너무 연약했다.

너희 사람들이 예수의 혼에 루시퍼적인 부분이 있고 예수의 혼이 한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었다는 관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면, 너희는 잘못 된 생각으로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이해하라.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를 단지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에 관한 순수한 진리가 너희에게 전해져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진리가 너희 사람들에게 올바른 빛을 주고 진리는 항상 단지 아버지 자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B.D. No. 7147

1958년 6월 18일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내 나라의 영접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던 그가 나를 더 이상 깨닫지 못했고 이는 그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대항하는 죄였고 이 죄는 나 자신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일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으면, 그는 이미 내 나라의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죄를 해결하는 일이 가능하게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왜냐면 내 피조물들이 나를 볼 수 없음이 나를 떠난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자에게 향했다. 그는 가장 밝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창조할 때 함께 역사했고 자신도 볼 수 없었던 신성과 의지적으로 결별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원인은 이제 실제 내가 인간이 되는 일을 통해 사라졌다. 그러나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은 이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너희 사람들이 원죄의 큰 잘못으로 인해 죄로부터 구속을 받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죄악 된 피조물들을 더 이상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는 내 공의가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속죄가 비로소 다시 피조물과 나와 의 옛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 관계는 죄를 통해 깨졌다. 인간 예수를 통해 이제 인류를 위한 속죄의 역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인간 예수 안에 나 자신이 임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큰 죄로부터 구속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구속하는 일을 위해 단지 인간적인 겉형체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 겉형체는 그러면 영원히 나를 그 안에 모셔야 했다. 이로써 내 존재들이 이제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아버지를 깨닫고 사랑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제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에 소멸돼야만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섰다. 왜냐면 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이제 구속사역을 통해 자신의 원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내 나라의 영접을 받는다. 나는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게 다가간다. 나 자신이 내 자녀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가 나를 떠났을 때 그의 의지를 인정했다. 왜냐면 자녀의 의지가 자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의지가 다시 역사하여 나에게 귀환을 추구해야만 한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구원받기 위해 그에게 부르짖고 구하는 일을 통해 그와 의식적으로 연결하는 일을 통해 증명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아직 찾지 못한 동안에 그가 묶임을 받았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은 자유의지의 행동이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바꾸는 일이고 밤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는 일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은 거부할 수 없게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간다. 그는 영원한 기간 동안 머물던 영역을 떠나 비록 그의 육체가 아직 이 땅에 거할지라도 빛이 충만한 영역으로 간다. 그러나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 혼은 다시 자신의 고향을 추구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 항상 능력과 빛을 제공받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어 사람이 무엇이 선하고 올바른지 깨닫고 그의 의지와 행하는 일이 이제 선하고 의롭게 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더 이상 나를 찾은 내 자녀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자녀는 내 인도 아래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는 자유와 빛과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원래 초기에 그가 정함받은 대로 나와 함께 내 뜻 안에서 창조하게 될 아버지의 집에서 내 자녀로 영접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B.D. No. 8250

1962년 8월 24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 더욱 어두워지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와 하나가 된 것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데에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르침 받은 것으로 인해 잘못 된 생각에 도달했다. 그러나 영원한 신성은 인격화 될 수 없음을 항상 또 다시 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신성을 모든 무한한 것을 채우고 있는 능력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고 이 능력은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형태로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능력은 한 형체를 전적으로 채울 수 있고 신적인 능력이 전적으로 비추어 채워지는 과정이 인간 예수에게서 일어났다.

예수는 사랑이 충만했고 사랑은 영원한 신성의 근원적인 성분이다. 이 사랑은 무한한 세계를 향해 쉬지 않고 비추고 있고 모든 것을 생성되게 했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런 신적인 사랑의 힘이 인간의 형체 예수를 비추어 채웠고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원래의 속성이 인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예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성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되었고 전적으로 영화 된 인간적인 겉형체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예수는 이제 상상해볼 수 있는 신성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두 인격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모든 피조 된 존재들이 도달해야 할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목표에 도달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창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완성은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도달해야만 한다. 인간 예

수는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역을 통해 인류의 죄를 용서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이고 이런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원래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그렇지라도 너희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면, 이는 오류로 인도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은 인격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서 이제 역사하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단지 예수 안에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때 창조 된 존재들이 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옆에 계신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화된 형체에 비추어 채울 수 있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힘은 단지 신적인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지 자신을 영화시킨 존재만이 이 사랑의 힘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아들을 지혜로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는 의지나 권세로 인정을 하면, 실제 유효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할 때 세운 목표가 이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면, 이런 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과 볼 수 있는 예수 안의 신성을 설명한다. 반면에 세가지 인격을 가진 신성은 전혀 올바르지 않고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개념을 만들어 내었고 이로써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었다. 왜냐하면 세가지 서로 다른 신들을 불러서는 안 되고 단지 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안에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예수 안에서 경배받을 수 있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때 그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동시에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아멘

예수의 영적인 사명.

B.D. No. 6985

1957년 12월 5일

너희가 인간 예수의 높은 영적인 사명을 깨달으면, 너희는 왜 하나님의 구세주를 쉬지 않고 거론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자신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비로소 그가 빛나는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원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속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아마도 아직 믿는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인간이 축복을 받는 일과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부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이 구속사역이 단지 전해졌고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진지하게 설명 받기 원하면, 비로소 그들에게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단지 적은 수 될 것이다. 왜냐면 가장 분명한 설명도 영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단지 이 땅의 세상을 인정하고 그들이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예수의 사명이 비록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단지 세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 사명은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짐을 넘겨주고 그에게 사해주기 원하는 죄짐을 진 형제로서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취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구속받기 원하면, 먼저 이런 구함이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죄짐을 인간 예수의 큰 속죄의 제사를 통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을 죄인이 되게 만든 하나님을 대항한 큰 죄를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가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속역사의 범위와 그들이 한때 가졌던 성품과 그들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항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을 자신 안에 모실 수 있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이제 자신의 피조물들을 그들의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 원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한 예수의 구속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만약에 단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은 죄를 말하면, 이 죄를 사하기 위해 이런 구속사역이 필요하기에는 사람들에게 자주 적게 보이는 죄를 말하면, 예수의 사명에 대한 이런 설명이 사람들에게 이해할만 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죄는 사랑에 대항하는 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다.

그러나 한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원죄는 아주 커서 존재 스스로 영원한 기간이 걸린다 할 지라도 이 원죄를 속죄할 수 없다. 이를 이해하는 일은 너희 사람들에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로 이런 말할 수 없이 큰 죄는 말할 수 없는 큰 속죄를 요구한다. 실제로 이 속죄를 한 사람이 행했다.

그러나 단지 이 사람 안에 하나님 자신이 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래의 성분인 사랑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그로 하여금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가 속죄를 행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한때 원래 창조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요청했고 이 능력을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긍휼의 역사에 사용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이 원죄의 결과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래 상태에 실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모른다. 그러나 아주 큰 사랑으로 이 원죄를 사해준 분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들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모른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의 상태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 위해 그에게 다시 의식적으로 향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이 전해지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전해지는 것을 단지 스스로 생각하고 진리로 영접하고 활용해야 할 아주 말할 수 없게 큰 은혜이다.

왜냐면 그러면 그는 단지 인간 예수에게 향하고 그와 생각으로 대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도울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면, 그의 죄를 넘겨받을 것이다.

모든 각각의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단지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이렇게 된 원인을 헤아려 보려고 하면, 그가 한때 죄를 지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내적인 질문은 대답을 받지 못하고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먼저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세주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면, 하나님의 구세주를 알려 주는 그의 큰 영적인 사명을 알려주는 모든 지식을 주저하지 않고 거부한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준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의 모든 일꾼은 항상 더 큰 열심으로 그의 이름과 그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대적자의 묶임을 받은 존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스스로 그 안에 긴밀한 연결을 이루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한다.

아멘

고난의 금요일.

B.D. No. 7577

1960년 4월 15일

너희는 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인간으로서 너희를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고 너희의 죄 짐을 탕감하고 너희의 타락으로 인해 너희

에게 닫혀 있는 빛의 나라를 너희에게 다시 열어주기 위해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내 생명을 드렸다. 이런 희생제사를 내 안의 사랑이 드렸다. 이런 사랑이 단지 이런 공허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왜냐면 사랑은 힘이고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인간 예수가 겪은 고난을 결코 측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비록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했을지라도 인간의 몸이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가 공의를 위해 큰 죄를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가 측량할 수 없게 커서 영원한 기간이 지날지라도 존재들이 스스로 죄를 속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존재들이 나에게 반역했을 때 그들은 빛으로 충만했었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이런 큰 죄를 알았고 그는 또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런 죄가 헤아릴 수 없는 속죄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에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쳤고 사랑이 이런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또는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이런 희생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런 희생 재물을 영접했다. 나는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그를 내 영과 힘인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큰 죄짐에 상응하는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함께 하는 구원 역사를 행할 힘을 얻게 했다.

그는 죄짐을 해결하기를 원했고 공의를 위해 속죄를 행하기를 원했다. 그는 또한 인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인류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 지를 알았다. 그의 혼이 자신을 나에게 희생 제물로 드렸다. 그의 혼은 그의 형제들이 깊은 곳으로 타락했을 때 나와 함께 머물렀고 그의 혼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드렸다. 왜냐면 그들 스스로가 더 이상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고 그들의 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혼은 이런 모든 일을 알았다.

나는 내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고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속죄하겠다는 내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내 아들은 자신이 맞이할 고통의 정도를 알았다. 그러나 그의 사랑이 그를 이끌었고 그의 사랑이 나에게 향했고 타락한 형제들에게 향했다. 그는 타락한 형제들을 나에게 다시 데려오기를 원했고 그는 이 땅으로 임해 인간으로 살았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자신 안으로 영접했다. 그를 점점 더 채워준 사랑인 나 자신이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정했고 이런 사랑이 단지 노예가 된 인류에게 향했고 그들을 내 대적자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릴 때까지 고난과 사랑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는 인류를 짓누르는 큰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끔찍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날이 오기 까지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내 대적자의 보냄을 받아 그에게 분노를 표출한 그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이런 고통은 사랑의 힘이 그를 유지시켜주지 않고 사랑 자체가 그를 채워주고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견딜 힘을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내 사랑이 속죄를 행했다. 이로써 예수의 구속사역을 깨닫고 구속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났다.

나 자신이 사람들을 긍휼이 여겼고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구원 역사를 완성했다. 내가 초인적인 고난을 짊어질 사람의 형체를 택했다. 이로써 인류에게 내 긍휼의 역사를 나타냈고 사람들이 그들의 큰 죄를 깨닫고 이제 스스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분에게 그들의 죄를 가져가게 했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용서를 구하면, 그들이 한때 나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로써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나는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아래로 옮기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나에게 향하는 길이 분명하게 되고 이런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분명하게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빠짐으로 인해 닫혔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아멘

다 이루었다.

B.D. No. 7668

1960년 8월 7일

너희 죄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게 한 분이 진실로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는 역사를 완성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세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이제 다시 나에게 귀환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그들의 죄를 속죄했다. 나에게 귀환은 한때 나를 떠나 깊은 곳으로 타락한 원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나 자신이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을 내가 항상 또 다시 강조해야만 하고 내가 영원으로부터 사랑 자체이고 이 사랑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항상 또 다시 강조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모든 깊이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음지라도 너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단지 인류가 자신의 엄청난 죄를 깨닫고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죄를 남김 없이 해결하기 위한 단 일회적인 역사이고 단 일회적으로 남게 될 특별한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일어났고 죄를 남김 없이 해결하는 일이 이뤄졌다. 이로써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죄짐으로부터 그가 자유롭게 될지는 단지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게 되었다.

구속사역은 모든 시간을 위해 완성되었고 이 역사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고 이 역사는 한때 타락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구속을 위해 충분하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들을 영접했기 때문이고 나 자신이 내 사랑 때문에 죄를 용서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공의 때문에 죄에 대한 속죄를 행했다. 인간의 겉형체인 예수가 견뎌야만 했던 끔찍한 정도의 고난은 나에게 속죄로 충분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안의 사랑이 그를 돕지 않았으면, 인간 예수만으로는 이런 정도를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이런 구속역사가 단지 일회적이고 일회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왜냐면 구속역사의 구속하는 효력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직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론될 것이다.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이 항상 사람들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진실로 어떠한 다른 속죄의 제사도 필요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모든 시간을 위해 이 역사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만족해야 하고 너희의 관점을 내 구속사역에 부합될 수 없는 사탄적인 역사로 돌려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내 구속사역이 절대로 완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유일한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축복의 길로 가르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의 구속을 방해하기 원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깨닫고 인정하기 원하는 나를 떠나게 하려는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내 대적자는 빛의 천사의 옷을 입고 자신을 소개하는 법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가 드러나게 하는 일이 너희에게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적자인 그를 잘 알고 그의 원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올바른 생각을 구하고 모든 영적인 위험 가운데 도움을 구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면 너희는 올바른 길로 인도받고 이로써 너희의 구속이 분명해질 것이다. 너희는 선명하고 확실하게 너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 것이고 어떻게 어디에서 너희에게 위험이 있는 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구속했다. 왜냐면 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이기 때문이다. 이런 속죄를 행한 일이 내 대적자에 의해 약화될 수 없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항상 역사해서 너희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게 하려고 너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종말의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믿음 안에서 강해야 하고 너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육체와 혼의 모든 고난과 위험 가운데 이제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부르기 때문이다.

아멘

혼의 성장에 구속역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일.

B.D. No. 3642

1945년 12월 31일

혼의 성장을 이루는 일에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속해 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또한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한 분을 인정하고, 그는 또한 그리스도가 인류의 큰 죄짐을 위한 속죄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끝없이 긴 포로 생활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음을 안다. 결과적으로 그는 또한 이 위대한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깨닫고, 구속역사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둘 것이다.

그러나 구속사역의 은혜가 비로소 혼을 성숙하게 한다. 왜냐면 구속자 자신이 이제 혼을 높은 곳의 자신에게 이끌기 때문이다. 그는 혼에게 옳은 일을 원하고 행할 힘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머물고, 그는 연약한 상태로 머물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머문다. 혼은 낮은 성장 단계에 머문다. 왜냐면 혼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지혜와 순수한 진리를 깨달을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사랑 없는 사람은 인류의 죄와 죄짐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고,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무지하고, 이 땅의 인간의 목표와 과제에 대해 무지하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그의 삶은 이미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고, 그러면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가 그에게는 가장 깊은 사랑의 상징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하고, 세상이 그에게 요구한다면, 그는 또한 세상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의 혼은 위를 향하고, 또한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하다. 왜냐면 혼이 자신의 힘으로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추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강하게 되고, 혼이 지속적으로 힘과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혼에게 빛과 능력이 충만한 축복을 의미한다. 왜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 모범적으로 산 것처럼, 예수를 따르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그들에게 영원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 사람들은 희귀하게 내 십자가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나 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영의 세계를 위해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구속받지 못한 존재들을 위해 결정적이다. 이전에 혼들은 이 땅을 떠난 후에 희망이 없이 저세상으로 들어갔다.

왜냐면 혼들이 그들이 빛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막는 짐을 가지고 갔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의 경건함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믿고 이런 믿음을 저세상으로까지 가지고 간 사람들만이 저세상에서 모든 갈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최종적인 자유를 줄 하나님의 구세주를 기다렸다.

내 구속사역을 통해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어떤 혼도 희망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 필요 없다. 단지 나와 내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들의 주인에 대항해 나를 부르는 모든 혼은 이 땅에서 이미 빛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부름을 의식적으로 위로 보내기 위해 사람은 구속사역을 자신 안에서 생각해야만 한다. 그는 내 고난과 죽음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는 자주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로 향하게 해야만 한다. 그는 인간 예수가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견뎌야 했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상상해보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그는 예수 안의 나 자신과 긴밀하게 연결을 이뤄야만 하고 항상 또 다시 내가 그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을 눈앞에 똑똑히 봐야만 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또는 단지 말을 통해 그의 죽은 믿음만을 표현하며 무관심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는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이 잘못을 십자가로 가져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에게 공훈을 구하고 너희 혼의 원수에 대항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면, 너희 모든 사람은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부름을 너희에게 요구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의 부름이 없이 너희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너희 대부분은 하나님의 구세주의 도움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1958년 6월 30일) 너희가 한 사람이 너희를 영원한 자유 없음으로부터 너희를 돕기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아직 이런 자유가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상태는 너희가 인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모든 충만함으로 함께한 인간 예수를 생각할 때까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에게 너희가 자유에 도달하게 너희를 도와 주기를 구하기까지 너희의 운명이다. 그러나 도움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길을 택하려는 너희의 의지를 표현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도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머무느냐? 내 구속사역은 너희에게 의미 없는 역사이고 오히려 너희가 자원

하여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은 문제이다. 내 구속사역은 의심스러운 의문이거나 또는 너희가 깊은 의미를 두지 않는 전설이다. 그러나 내 구속사역은 가장 중요한 역사이다. 단지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행한 역사 가운데 이런 큰 공훈의 역사에 깊이 빠지게 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는다.

그는 목표에 도달한다. 왜냐면 그에게 죄와 죽음과 자유 없음과 어둠으로부터 구속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 자신을 드러야만 한다. 너희는 그에게 그가 너희를 영접해주기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에게 너희의 연약함과 약점을 고백하고 이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를 그에게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삶에 그가 개입하게 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가 없이 살아가는 안 된다. 왜냐면 너희가 날마다 매시간마다 너희의 큰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내가 인간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든 아주 큰 사랑을 생각하면, 너희는 구속사역의 모든 깊이를 깨달을 수 있고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것이다.

너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왜 그들이 이 땅의 길을 가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이를 알려주면, 그들은 믿지 않으며 이를 영접하는 일을 거부한다. 그들은 언젠가 자유 없음과 능력 없음의 상태에서 자유와 빛과 능력의 상태로 바꾸기 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함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언젠가 그들의 어둡고 능력 없는 상태를 깨닫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죽음 후에 계속되는 삶을 믿지 않고 그들의 나에 대한 이 땅의 삶을 사용한 것에 관한 책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편에서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의미와 구속사역의 의미와 이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선명한 지식을 주었다. 이 지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지식은 항상 또 다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의 역사로 무지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항상 드러나고 이 가르침이 변질되면, 이로써 더 이상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를 믿는 일이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사람들이 너희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함을 선명하게 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모든 믿음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 인간 예수의 사명과 인간 예수가 완성한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돌볼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의심스럽게 보이는 것을 영접하라고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자유의지로 영접하고 유일하게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너희의 원죄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너희를 한때 생성되어 나오게 한 나에게 도달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설명한다.

아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B.D. No. 7717

1960년 10월 1일

너희 모두는 다시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 모두는 다시 아버지인 내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는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 땅의 육신 안에서 또는 저세상에서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 심장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아버지의 심장을 향해 달려오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영들을 창조할 때 세운 내 목표에 도달한다. 단지 내 사랑이 결정할 수 있으면, 너희 모두는 이미 오래 전에 하늘나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자녀들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내 사랑은 내 영원한 법을 어기면서 행할 수 없다. 이 법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고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던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인 너희 사람들에게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은 아주 서로 다른 긴 시간이 걸린다. 짧은 시간 안에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여러 성장 시대가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는 너희에게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고통과 묶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너희는 언젠가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인간인 너희는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고통이 충만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 고통을 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미 오래 전에 극복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 가지 않게 너희에게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기간 동안 너희의 인도자로서 나 자신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가장 짧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 주기 위해 순례자의 길 가운데 너희와 함께한다.

높은 곳에 향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이다. 이 길을 가는 자는 전적으로 확실하게 나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면, 이로써 너희를 위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를 해결한 그가 너희를 구속하게 하면, 너희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향하는 이 길은 이 땅에서 또는 저세상에서 피할 수 없이 가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타락하였을 때 공의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만 했던 내 사랑이 다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의는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를 통해 충족되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대가를 지불했고 공의가 무효화 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인간으로써 넘치는 고난과 고통을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큰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이런 희생제사를 이제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의 의지가 죄를 용서해 주기를 의식적으로 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십자가 아래서 죄를 고백해야만 한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의 긍휼과 그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를 다시 감쌀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 구속했다. 너희가 한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면,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은 완성에 이른다.

그러면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성장단계 도달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한번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일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너희는 영의 나라에서 항상 더 높게 성장할 것이다. 내 사랑이 너희를 이끌 것이다.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항상 강해질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축복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은 제한이 없고 나 자신을 영원히 선물해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B.D. No. 9010

1965년 7월 7일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너희 인간들에게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일은 너희가 이 죄로부터 속죄 받으려는 의지보다 먼저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너희는 의식적으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번은 너희가 한때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지은 잘못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이유인 너희의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진지하게 소원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제 이 죄를 의식적으로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을 때 너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당시에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지 형식적으로 그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을 즉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너희의 죄짐을 위해 하나님에게 속죄 재물을 드린 것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절대로 빛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전적으로 의식해야만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영원하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다. 이럴 때 비로소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너희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용서를 구한다. 이 것 만이 이 땅에서 너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사랑이 너희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비로소 이 과제를 성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전적으로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삶은 헛된 삶이다. 그는 본질적인 목적인 자신을 자신의 원초의 상태로 다시 바꾸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면 그의 죄가 그에게 부담을 주고 만약에 그가 저세상에 갈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세상에서도 그에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 자유롭게 결정하게 한다.

그러므로 항상 너희에게 빛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빛에 감사하는 열린 심장과 귀를 가진 사람을 아주 찾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단지 그들의 세상적인 육신에 안락함을 주는 것만을 갈망하면서 아무 염려 없이 산다.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확실하게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했을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은 자꾸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단지 아주 적은 사람들 만에게 구속사역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구속사역은 거의 전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사역이 강조되는 지역에서도 생명력이 부족한 단지 형식적인 믿음을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구속을 주게 하는 의식적으로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구속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적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야만 함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전적인 의식 가운데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헌신해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에게 구속역사가 효과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귀로만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심장은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려고 하며 큰 구속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랑하게 권면하는 일꾼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생명력 있게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것이다. 사랑이 그들에게 빛을 주고 이 빛이 이제 항상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큰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음을 그리고 이 한 분 만이 큰 죄의 값을 치룰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는 이제 용서해주기 위해 제한 없이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요청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너희가 인정하는 것을 거절해 깊은 곳으로 타락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여기에 큰 비밀이 들어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죄인으로 만든 큰 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이 죄를 구속했다.

아멘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가는 일.

B.D. No. 7940

1961년 7월 11일

나는 너희의 모든 길에서 너희의 동행자가 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 곁에서 함께 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조언을 해주고 너희에게 내 뜻을 알려 주기 원한다. 너희가 이런 내 뜻을 성취시키면,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나와 연합이 되어 이제 자유와 빛과 능력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너희의 동행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를 내 대적자부터 지킬 수 있다. 대적자는 너희를 공격하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공격은 증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통해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와 연합이 되어 있어 나 자신이 너희들 곁에 함께 가게 만들지 않으면,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살고 영의 세계에서 너희의 혼을 얻기 위한 싸움이 항상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계속하여 너희 혼을 얻기 위해 빛이 충만한 세계와 그리고 어두운 세계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세력은 자신을 위해 너희를 얻기를 원한다. 너희 자신이 어떠한 세력이 너희에 대한 승리를 할지 마지막 결정을 해주게 된다. 너희 스스로 너희가 어떠한 영역에서 거하기를 원할지 정한다.

너희는 너희의 의지를 통해 나를 향할지 또는 나를 멀리하지 정할 수 있다. 진실로 단지 짧은 생각만으로 너희가 나를 너희의 편으로 부르는 일이 가능하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 대적자와 그의 돕는 자의 계속되는 영향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항상 너희 옆에서 함께 갈 수 있게 하라.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은 축복될 것이다. 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의식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 인지에 관한 일이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너희는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게 된 너희의 이 땅의 시험에 합격을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에게 사랑의 관심을 갖게 강요할 수 없다. 나는 항상 단지 사랑이 충만한 말을 통해 너희를 나에게 이끌려고 시도할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단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너희의 생각에 끼어 들 수 있고 너희의 삶에 운명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나타내는 효과를 너희 자신에게 맡겨 두어야만 한다. 너희는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스스로 내 손을 붙잡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떠나지 않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의지가 영원 가운데 처할 너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은 더 이상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종말이 가까이에 있다. 너희 모두는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의 나에 대한 자세에 따라 이제 너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내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처럼 영원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라고 권한다.

바로 이 종말의 때가 나로 하여금 항상 같은 내 뜻을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전해주게 만든다. 내 뜻은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나 자신이 사랑인 나와 가장 확실하게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머물러라.

너희는 나를 너희에게 이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긴밀한 기도는 마찬가지로 자녀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고 항상 내 뜻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내 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든다.

너희가 나와 연합이 되었다면, 너희는 더 이상은 어떤 것도 내 대적자도 다가오는 종말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고 내가 육체적인 영적인 위험 가운데 보호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드리고 너희의 의지를 내 의지 아래 두고 너희의 생각을 자주 영적인 영역으로 향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내 사랑이 너희를 붙잡고 너희의 삶의 끝까지 동행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 옆에 함께 갈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외롭거나 버림받게 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손을 잡고 가게 되어 아버지의 나라의 집으로 돌아 가게 된다.

아멘

생명력 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

B.D. No. 8045

1961년 11월 22일

 든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얻기를 추구해야 한다. 왜냐면 그럴 때 그는 절대로 무능력하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그가 생명력 있게 믿는 나를 도피처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능력을 계속하여 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왜냐면 기도와 긴밀하게 나를 생각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나와 연결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력 있게 믿는 믿음은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요구한다. 왜냐면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사랑인 나 자신을 자기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임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얻은 것이다. 그는 이제 나와 연결을 더 이상 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절대로 능력이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높은 가치가 있다. 왜냐면 사람은 이제 자신의 길을 더 이상 혼자 가지 않고 지속적인 동행 가운데 가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더 이상 그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사랑을 통

해 자신 안에 내 임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것은 의지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향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왜냐면 그는 나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믿을 수 없거나 또는 그의 믿음은 단지 죽은 믿음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통해 그의 믿음이 생명력 있게 되었다면, 이미 그와 함께 성품의 변화가 선행이 된 것이다. 사랑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 빛 안에서 그는 이제 나 자신을 깨닫고 나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일 외에는 그가 한때 버렸던 나와 연합되길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사랑과 믿음은 상대방에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밝은 빛을 선사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은 확신이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진 믿음이 비로소 사람에게 내가 사람을 통해 그에게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 자신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준다.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평화롭게 자신의 이 땅의 삶을 길을 가는 가! 그는 절대로 버림받았거나 연약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신 가까이에 내가 있는 것을 안다. 그런 모든 안건들을 나에게 가지고 온다. 그는 세상적인 또는 영적인 위험 가운데 나에게 가져오는 그의 모든 부탁을 내가 들어준다는 것을 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진실로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믿음은 나에게 너희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나와 연합되어 있기를 원하는 너희의 의지를 증명한다. 너희는 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목적인 의지의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속한 나 자신을 너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주 오랫동안 죽음에 빠져 있었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안의 나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의 아직 죄의 묶임 아래 있는 동안에는 너희의 영은 어둡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한 때 그랬던 것처럼 나를 인정하는 것을 항상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어두운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너희는 자유롭게 되길 구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성품을 다시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곧 연결을 이루려고 시도할 것이다. 너희 안에 굳은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이 너희가 이 사랑이 비치게 허용하면, 너희에게 밝게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다 너희는 내 임재를 생명력 있게 믿게 된다. 나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계시할 것이다. 너희가 믿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나를 증명할 것이다.

아멘

너희는 자주 너희를 증명을 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단지 가능한 곳에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소요를 심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들 것이다. 그는 너희 자신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 너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너희는 항상 그의 시험에 저항하기 위해 능력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가 너희를 공격할 수 있기 전에 항상 나에게 eh 피해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날마다 매시간마다 그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해서 이로써 내가 너희들 편에 서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를 대항하는 싸움은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너희들 싸우지 않고 너의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혼의 원수를 너희들로부터 물리쳐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가 영적인 추구를 하는 곳에서 특별하게 강하게 역사해 추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겨내야 한다. 모든 진지함으로 저항을 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 오래 참지 못함으로 불쾌함으로 사랑이 없게 됨으로써 그에게 공격당 할 요소를 주어서는 안 된다. 공격 당 할 요소를 주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항상 도움을 줄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항상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생각이 더 이상 빠르게 나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단지 나와 의 긴밀한 연결 만이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한다. 그가 너희를 불안하게 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할 수 있으면, 너희는 아직 연약하고 그는 그의 권세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하여 너의 혼에 작업을 해야 하고 모든 약점을 극복하려고 해야 한다. 너희는 항상 필요한 능력을 나에게 단지 구해야 한다. 진실로 너희의 의지 만으로 이미 너희에게 능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승리자로 드러날 것이다. 종말의 때에 그의 역사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면 그는 평화를 조화로움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그가 성공하는 것은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구세주요 구속자인 예수를 단지 부르는 것만으로 너희를 강하게 만들고 너희가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음을 통해 그를 패배시켰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면, 그는 너희를 자유롭게 해줘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자주 이런 시험 가운데 구세주와 구속자를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린다. 왜냐면 이는 너희의 생각에 혼돈을 일으켜서 너희가 그의 공격에 넘어가게 만들고 인간으로써 너희 스스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나만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일을 너희가 관철시키게 만드는 내 대적자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시험에서 증명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대적자는 물러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능력이 진실로 그

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자신의 도피처를 삼는 어떤 사람도 위험 가운데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너희가 능력을 요구하지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항상 이런 능력을 전한다. 그러면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향한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내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너희를 모든 위험과 고난 가운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그는 아주 자주 너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주 너희는 사이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주 그의 시험에 패배할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영으로 진리 안에서 나를 한번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나는 그를 너희 들로부터 물리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그에게 맡겨 두지 않고 너희에게 항상 모든 영적인 위험 가운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멘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강한 의지를 얻는 일. 의지의 평가.

B.D. No. 7035

1958년 2월 6일

시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경우 의지로 충분하다. 왜냐면 사람은 그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는 지에 따라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면 단지 말만으로 충분치 않고 진지한 의도가 있어야만 하고 진지한 의도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진지한 의지를 알아 채자 마자, 너희에게 능력이 제공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도무지 진지한 의도를 갖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한 결정이야 말로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지의 강화를 체험하지 못할 때 너희가 전혀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비록 모든 사람이 의지적으로 나를 향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의지의 연약함에 빠진다. 그러므로 자주 자신의 의지를 따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나를 향한 의지의 변화가 내가 그를 구속역사의 은혜의 샘으로 인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가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가 사랑의 행위를 하게 내 영을 통해 그에게 역사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그가 내적인 추구를 따르면, 그는 능력을 받는 일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비로소 확실한 영적인 성장을 가능케한다. 왜냐면 이 도움이 없으면, 내 원수 곧 사람에게 대한 권세를 가진 내 대적자의 공격으로 그의 의지가 항상 계속 마비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아직 그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나는 나에게 드러진 의지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하기까지 쉬지 않는다. 왜냐면 사람이 단 한번 내면에서 나를 깊이 생각하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내 대적자에 대항해서 싸울 권리가 있다.

만약 사람이 이제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의 의지는 더 이상 쉽게 약해지지 않고 의식적으로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는 그의 의지대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며 이로써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혼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왜냐면 예수그리스도의 도움은 의지를 강화하는 데에 있지 않고 실제 이웃 사랑을 행할 계기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사랑의 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법을 잘 알고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의 심장을 굳게 해서 그들이 그들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안다. 이런 추종자들은 사탄의 진정한 종들이다. 왜냐면 그들은 영적 성장에 결정적으로 간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곳에는 나는 그의 의지를 이미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의지가 아주 약해 내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신적인 사랑의 계명을 무효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심장을 보고 평가하고 외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도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사역을 요구하는지 왜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진지한 도우려는 의지가 있지만 강요에 의해 실행하지 못해야만 하게 된 경우 행한 것과 같이 평가하는지 너희는 설명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진실됨이 부족한 유일한 의지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의 의지는 아주 연약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연약한 의지를 극복하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목표인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을 큰 열심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너희의 목표는 나를 향한 사랑이 커지고 너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커져서 이로써 너희가 하늘나라를 얻는 일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의지를 강하게 해줄 수 있다.

B.D. No. 8468

1963년 4월 14일

내가 너희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은혜의 역사로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 너희가 인간 예수가 죽음을 통해 너희 사람들을 위해 얻은 은혜를 활용하게 아무리 자주 너희에게 기억나게 한다 할지라도 충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는 구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원수이고 원수로 남을 그에게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의 축복을 원하지 않고 단지 너희를 멸망으로 이끌어 드리기를 원하는 자의 권세에 계속 묶여 있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도 한 때 나로부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사랑을 비추임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를 나로부터 타락하게 만든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절대로 내 사랑의 힘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능력을 받기 위해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비추어질 수 있게 자유의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너희는 이런 의지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의지는 아주 연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는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은혜를 구매했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가 진지하게 이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그가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해 주시기를 구하면, 너희를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이상 불가능 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 외에는 너희가 처한 위험 가운데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는 너희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이다. 너희는 그에게 너희

가 존재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 왜냐면 예수와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인간의 예수의 형체 안에서 너희 사람들을 위해 구속사역을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 사람들을 위한 구속사역이 볼 수 있게 이뤄졌고 너희는 이제 너희의 죄짐을 의식적으로 십자가 아래로 들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 스스로 구속되길 원하면, 너희 스스로 나를 대적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너희가 예수 안의 나 자신에게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면, 너희는 단지 너희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너희의 원수에게 대항할 능력을 스스로 갖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내 십자가의 죽음 후에 너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에게 넘치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그가 너희를 위해 죽었기를 구하면서 너희가 단지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넘치는 은혜가 너희에게 제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죄는 예수의 피 때문에 진실로 사함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친다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고 너희는 거절할 수 없이 너희를 바닥을 향해 짓누르는 너희의 죄를 계속 지고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 대적자에게 빠져 있을 것이다.

너희는 계속해 어두움과 무능력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어떠한 영적인 승리도 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내 대적자가 자유롭게 놔두지 않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한 힘이 자신에게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단지 예수와 그의 이 땅의 사명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으면, 너희가 단지 너희의 위험 가운데 도움을 받기 위해 너희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면, 너희가 단지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인간이 된 너희들과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그가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혼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연관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한 때 너희들과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 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가 이 땅에서 산 이유와 그의 고통의 충만한 사명의 이유가 무엇 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러나 너희가 이 은혜를 단지 영접하고 활용하기 원하면, 너희에게 제한이 없이 제공이 되는 은혜를 의식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한때 첫 번째로 타락한 천사의 영인 루시퍼가 너희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도와서 이런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올라오게 한다.

그러나 타락할 당시에 너희는 타락하게 강요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현재 돌아오게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자유의지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에게 향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도 그의 능력과 권세를 느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스스로 다시 빛과 능력이 충만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가 너희에게 빛과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그를 인정하면, 다시 말해 그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면, 그는 모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큰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는 이런 존재들에게 자신의 나라의 문을 열어 주었다. 그들이 자신의 원죄의 짐을 진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이 길을 가게 강요받지 않을 것이고 존재가 자유의지로 예수를 따라야만 한다. 그는 십자가의 예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 구속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로부터 떠나야만 한다. 그가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완성할 수 없는 일을 그는 모든 혼들을 위해 구속의 대가를 지불 한 하나님의 구세주에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대적자는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하는 모든 혼들을 자유롭게 놓아 줘야만 한다. 혼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게 하기 위해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렸고 그의 피로 모든 혼들을 자유롭게 구매했다.

이런 공훈의 역사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지나쳐 버리고 이 땅에서 그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무르고 예수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죽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멘

인정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B.D. No. 5844

1954년 1월 3일

너희 사람들은 단지 나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다. 거부하는 일은 너희에게 전혀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고 너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면 나를 거부하는 일은 그가 아직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공개적으로 나에게 저항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는 일은 그가 전적으로 내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그가 영원한 내 질서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일을 의미하고,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고 나를 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나를 추구하는 일은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가능하다. 왜냐면 단지 사랑의 삶이 나와 연합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단지 “예” 또는 “아니오” 만을 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단지 입술로 나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입술로 말한 것에 심장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회피하는 말로 사람들이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의 방식이 나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일을 알게 해주지 않고, 너희의 삶의 방식에 사랑이 없고, 너희 심장 안에 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희 안의 믿음이 아직 아주 생명력이 없어 너희의 혼에 대한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긴밀하게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너희의 길을 갈 때, 너희가 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너희의 모든 말은 단지 너희의 진정한 혼의 상태에 대해 내가 속지 않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고, 나 자신을 거부하는 일과 같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또한 나와 함께 살고, 그는 계속해서 항상 또 다시 나와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나와 긴밀한 대화를 하고, 내가 아버지처럼 그에게 말하게 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내 자녀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영원히 되찾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고, 구속받은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다. 왜냐면 구속 역사의 은혜를 통해 나에게 다가가려는 그의 의지가 단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단지 나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즉 의식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나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사람이 비로소 나를 진지하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람들을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얼마나 진지하게 나를 추구하는 지, 어느 정도 추구하는 지 질문해보라. 너희가 아직 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았고, 너희가 단지 외적으로 나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 삶의 방식이 나와 모든 연결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아직 찾지 못했고, 너희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이 없이 아직 대적자의 결박 속에 있다면, 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기독교 교파에 속하는 일이 너희를 내 나라의 후보자가 되게 하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고, 그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로 말미암은 속죄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의 부름이 들리면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하는 무리에 속하게 되고, 아버지께 달려가고, 최종적으로 내 대적자와 결별하고, 나를 긴밀하게 사랑하고, 나와 결혼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나에게 속해 머무는 사람들에게 속하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은혜를 활용하는 일.

B.D. No. 6670

1956년 10월 15일

너희의 이 땅의 삶이 영원을 위해 성공하려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얻은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런 은혜를 활용하지 않으면, 너희의 육체가 죽은 후에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보장하는 성숙한 정도에 너희가 도달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에게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난 타락으로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되었고 너희가 너희를 깊은 곳으로 끌어 들인 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이런 권세 아래 있고 너희 자신의 힘으로 이런 권세에게 저항할 수 없다. 너희에게 또한 이런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추구하려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그러나 너희가 한 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확실하게 힘을 받을 수 있고 의지가 강하게 될 것이다. 이 한 분은 너희를 간수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너희를 위해 구매했다. 왜냐면 그가 너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알았고 대적자의 권세를 무너트리기를 원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가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면, 이런 대적자가 너희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게 되었다.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이 행해졌고 이로써 너희가 이제 다시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혼의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너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자신을 구원해야만 하고 그에게 힘과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힘과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혼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해야만 하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런 보물을 구매한 분에게 힘을 구하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할 때 내 대적자가 아직 너희를 지배한다. 이 땅의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일은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내 대적자에게서 돌이켜 나에게 향하게 하는 일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단지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기 위해 인간 예수 안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너희는 한때 나를 거절했고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나를 떠났다.

이런 큰 죄가 너희를 약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이 너희의 저항을 통해 더 이상 너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기를 내가 원하면, 나는 먼저 너희에게 힘을 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요구하지 않은 어떤 것을 너희에게 줘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줘야만 하고 이 은혜를 사랑이 너희를 위해 드리기를 원했던 엄청난 희생 제사를 통해 다시 구매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희생 제사를 인정해야만 하고 이로써 희생을 치른 분인 인간 예수를 또한 인정해야만 한다. 그는 가장 깊은 사랑으로 묶임을 받은 혼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런 인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육신을 입었다. 왜냐면 나는 영원으로부터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지나칠 수 없다. 왜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힘을 얻고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연약한 상태로 머물고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절대로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로 충분하다. 이런 부름이 너희가 그를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빛과 힘과 축복으로 다시 돌아 가기 위해 너희에게 이제 필요한 은혜가 그의 무한한 은혜의 샘에서 너희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이 땅의 삶은 헛된 삶이고 너희는 깊은 곳에 머물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를 때까지 대적자가 너희를 붙들기 때문이다. 너희의 의지가 아직 너희를 자유롭게 내주지 않는 자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면, 대적자에게 더 이상 너희에 대한 권세가 없다.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는 일은 또한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고 너희가 이제 이 땅의 삶의 시험에 합격한 일이다.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B.D. No. 6579

1956년 6월 25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말할 수 없게 중요한 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갖게 권면해야 할 불가피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한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 증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아직 나와 가까운 연결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이 깨우침을 받을 수 없다. 그

러나 한 때 나를 떠난 죄가 아직 그들에게 남아 있고 이 죄가 그들을 내 대적자에게 묶이게 만든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한때 나를 떠난 죄를 알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가르침이 알려지면, 그들이 예수가 이 땅에서 한 말을 깨달으면, 그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이 단지 진지하게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받기 원했다면, 그들은 확실하게 설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그들을 더 이상 이 생각을 떠나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단 한 가지의 길 만이 있다. 왜냐면 내 영접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죄 사함을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유意志로 죄를 지은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 이는 내 끝이 없는 사랑도 어길 수 없는 법칙이다. 하나님을 실제 인정하지만 그러나 단지 말씀이나 또는 표면적인 생각으로 인정하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심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진지한 생각이 느낌을 통해 그가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서있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는 단지 한 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그의 영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선행 조건으로 하는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그의 영적인 관점을 날카롭게 해주었을 것이고 사랑이 그가 질문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사랑이 그가 오류가 있는 주장을 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어떠한 접촉도 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들은 작은 불쾌감에 빠질 것이고 그에게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1956년 6월 25일) 그는 항상 또 다시 자신의 이웃들과 대화를 하게 되거나 또는 이웃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항상 또 다시 이 땅에 거했고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당한 인간 예수를 생각하게 그의 생각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수의 이 땅의 삶을 알고 나 자신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기억나게 하고 그가 가진 사랑의 정도에 따라 영접하거나 거부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람에게 개입하고 그의 저항은 항상 줄어들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아직 전적으로 거부하는 자세를 가졌던 초기와는 다른 전혀 다른 빛으로 인간 예수가 그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가르칠 수 없게 되면, 너희의 의지는 죽음의 시간에 아직 대적하는 자세를 가진다. 그러면 그는 영의 나라에서 어떠한 축복도 기대할 수 없고 그는 그의 올바른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거하는 영역으로 영접받을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을 구속하게 허용하지 않았고 그가 묶임을 받은 가운데 영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영의 나라에서 아직 자신의 하나님의 구세주인 구원자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영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나를 거부했던 모든 존재들을 만나는 일은 내가 베푸는 아주 큰 은혜이고 내가 구세주로서 나에게 향하는 모든 부름을 듣고 이제 부르는 자의 손을 잡고 그들의 영역으로부터 내 신적인 나라로 인도하는 일은 내가 베푸는 아주 큰 은혜이다. 왜냐면 내가 인

정을 받고 혼이 단지 이 땅에서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나는 아직 깊은 곳에 있는 혼을 다시 데려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혼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빛의 나라의 문은 모든 혼에게 닫혀 있다. 그럴지라도 문을 열어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속자로 인정하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말했고 인간 예수 안의 나 자신이 인정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내 겉형체로서 나를 섬겼다. 그러나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이고 영으로써 모든 창조된 존재들이 볼 수 없었던 내가 영의 나라의 모든 내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영의 나라에서 이 겉형체를 유지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나는 한 형체를 택했고 이 형체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자신이 거한 형체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향하는 올바른 길을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는 영원히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 대적자가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통해 아직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B.D. No. 7216

1958년 11월 28일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직 내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 그는 단지 빈 그릇이고 영이 없고 생명이 없는 죽은 형체이다. 왜냐면 생명은 나를 깨닫고 나를 이웃에게 고백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며 내 이름을 말하기를 피하는 것을 통해 나와 내 구속사역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 단지 희귀하게 영적인 대화를 허용하고 허용하면, 단지 불쾌한 가운데 허용하는 것을 통해 너희는 그들이 형식적인 신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죽은 추종자로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가장 큰 기쁨으로 내 이름을 고백할 것이고 사람들이 내면으로부터 세상 앞에 나를 고백하게 재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얼마나 적게 사람들이 기독교적으로 처신을 하는 지에 그들이 종교나 또는 기독교를 즉 교회나 또는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나 모든 것이 비밀로 포장되어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의 나라에 관한 또는 사람의 이 땅의 과제에 관한 주제를 피하는 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너희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한 분을 고백하거나 또는 거부하기를 요구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단지 소수만이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세상 앞에서 나설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심장 안에서 아직 전적으로 버리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올바른 고백이 주는 결과를 자신이 짊어지기 위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설 것이다. 종말 전의 내 대적자의 역사인 환란을 견디는 사람은 단지 소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지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이런 사람이 세상 앞에 큰 소리로 내 이름을 고백하기 때문이다. 단지 이런 사람이 나를 부인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단지 생명력이 있는 믿음 만이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

단지 생명력이 있는 믿음 만이 사람 안에 내 영의 역사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내 도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게 한다. 이 때는 누가 나에게 속하였는지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기독교가 지금까지 단지 형식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들이 구분되는 때이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또는 저러한 교파를 추종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따라야만 한다. 그가 나와 생명력있게 연합이 되어 큰소리로 그의 하나님이요 구세주로서 내 이름을 선포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내 영접을 받을 것이다.

나는 빛의 나라에서 그를 고백할 것이다. 나는 "세상 앞에 나를 고백하는 사람을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것이다." 라는 내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달았고 내 영이 그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아직 내 대적자에게 속해 있고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내 대적자에게 속한 상태로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내 이름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의 날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면 나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생명은 단지 나로부터 오고 나에게 속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러나 마지막 결정을 그에게 요구할 때에 그가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떠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도달한다 는 이 말씀을 이해하라.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축복으로 인도하는 내 무리는 단지 작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빛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B.D. No. 8036

1961년 11월 8일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너희 아버지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 이 사랑이 너희가 나에게 하는 부탁을 너희에게 들어줄 것이다. 왜냐면 이 사랑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질문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답변할 것이다 너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너희는 도구로서 나를 섬기는 그들이 듣기를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내 일꾼을 통해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하는 사람이 항상 내 사랑의 계명을 존중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너희의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설명을 받아야 한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왜냐면 이를 통해 한때 인정하는데 실패해 나를 떠났던 너희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면 그는 이 사랑을 통해 나와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각으로 그와 연결되려고 할 것이다. 그는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삶의 방식이 사랑의 삶이 그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나와 계속하여 연결이 되게 만든다. 그럴지라도 그는 빛의 나라의 영접될 수 있기 위해 공의 때문에 먼저 속죄를 해야만 하는 원죄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것을 그가 알면, 그는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의 원죄를 속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의 사랑의 삶이 그로 하여금 구속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된다. 원죄를 사함 받지 못했으면, 그에게 가장 밝은 깨달음을 주는 사람 안의 영은 깨어날 수 없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죄사함을 구해야 한다.

한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결과로써 영의 어두움이 아직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영이 그에게 인간 예수의 사명과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된 것에 관한 밝은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이다. 영이 깨어나는 것은 비록 항상 사랑의 삶의 결과이지만 영이 깨어나는 일은 대적자에 의해 주어진 어두움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되게 시도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왜냐면 그는 단지 진리만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 안의 영은 생각을 바꾸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받지 못한 동안에 그의 생각은 대적자의 영향을 받는다. 왜냐면 대적자의 이 혼에 대한 권세가 아직 중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이름으로 나를 상상하던지 간에 내적으로 나를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게 된

다. 그들이 저세상에 가게 되면,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다가 간다. 그들 안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왜냐면 내가 이제 그들의 영에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왜냐면 비록 그가 빛의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대적자가 그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 된 생각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깊은 내적인 갈망이 된다. 그러면 그의 삶의 방식과 선한 의지 때문에 그에게 용서가 보장이 된다. 이런 혼 안의 모든 저항이 물러났기 때문이다.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나에게 나가게 한다. 이런 혼들 앞에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밝고 선명하게 놓이게 된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고 그들의 원죄가 이제 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는다. 이로써 그들에게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고는 열리는 것이 불가능했을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깨닫는다.

왜냐면 나와 그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증명 된다.

아멘

지옥으로부터 구원. 십자가 형체의 빛의 광선.

B.D. No. 5929

1954년 4월 13일

지옥은 자신의 희생자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고 어두움 속에 거하는 존재들은 그들을 묶고 있는 내 대적자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 그러므로 지하 세계의 권세자를 무력화시킬 무기인 사랑의 무기가 없다면, 이런 혼들은 구원받을 수 없게 멸망받을 것이다. 사랑의 무기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장 강력한 적을 물리 치는 무기이다. 나는 사랑의 무기를 사용하고 사랑은 의지에 강요를 하지 않고 혼 자신이 원할 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사랑의 무기로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계속하여 가장 강력하게 나를 대항해 저항을 혼들의 의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내 사랑이 지옥으로 내려 가고 내 대적자는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왜냐면 내 대적자는 내 사랑 앞에 무기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어두움의 존재도 나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들은 단지 나를 외면하고 내 사랑의 빛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혼들은 당분간 개선이 될 수 없고 계속해서 불행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각각의 혼의 상태를 알고 언제 저항이 줄어드는 지를 알고 혼이 언제 게으른 상태가 되어 이런 혼이 내 사랑의 빛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안다. 나는 이런 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간다. 왜냐면 이런 혼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들에게 십자가의 형체의 빛이 비취지고 혼들이 번개와 같이 빠르게 십자가에서 죽은 분을 기억하고 이제 떠오르는 생각을 안도감을 느끼고 갑자기 자신의 주변을 벗어나려는 영감을 얻는다. 왜냐면 십자가가 반복해서 그들에게 비취지고 희미한 희망이 그들 안에 떠오르고 혼들이 이런 희망을 붙잡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분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생각을 더 이상 물리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소원은 내 사랑의 비추임의 효력이다. 그러나 이런 효력은 존재가 저항을 포기한 곳에서 단지 역사한다. 이런 수동적 상태는 또한 내가 지옥을 향해 베푸는 사랑의 결과이다. 이 사랑은 지옥의 영역에서 증오의 파도를 부드럽게 하고 저항을 꺾고 혼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혼에게 강요하지는 않고 혼의 동기가 함께 참여하고 나는 혼의 의지를 잘 알고 있고 이런 혼에게 구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혼에게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비춰지면, 최고로 악한 어두움의 세력도 더 이상 혼이 한번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혼에게 도움을 약속하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혼의 의도를 막을 수 없다. 그러면 내 예수의 사랑이 혼을 붙잡을 수 있고 혼을 깊은 곳에서 끌어 올릴 수 있게 되고 혼의 의지와 나를 부르는 혼의 부름이 혼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슬을 풀고 모든 감옥의 문을 열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두움의 세력이 도피하고 혼은 빛 안으로 들어가고 사랑의 종들의 영접을 받는다. 사랑의 종들은 혼이 위로 향하는 길을 계속 가도록 도움을 준다. 비록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타락한 존재의 저항이 아직 아주 클지라도, 혼은 언젠가 내 사랑이 자신을 붙잡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한없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어떤 혼도 영원히 멸망받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한다.

B.D. No. 6797

1957년 4월 3일

너희를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들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받은 모든 혼들은 너희에게 감사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너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그들을 영원한 축복이 있는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찾지 못한 동안에는 그들은 무기력한 가운데 방황하고 그들이 저세상의 나라에 도달하면, 그들의 생각은 혼돈되고 그들의 환경은 빛이 없고 그들 자신의 상태는 고통이 충만하다. 왜냐면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부족한 생명의 능력을 고통스럽게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무능력과 그들의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게 해주고 너희가 한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죽음 후에 자기 자신을 위험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길 원하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서는 안됨을 알게 해주면, 이런 일은 너희가 이 땅에서 아직 한 사람에게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긍휼의 역사이다. 너희가 접촉을 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에 대한 관점은 많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런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의 구속사역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다.

그들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만 이 죽음을 단지 순전히 세상적인 죽음으로 알고 이 죽음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적인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신성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전적인 믿음으로 그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짐을 가지고 있고 이 죄짐을 가지고 빛과 능력이 없이 저세상으로 간다. 왜냐면 그들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의 이 땅의 삶은 헛된 삶이고 아무런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그들을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과정을 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지 못했다. 이런 혼들은 그들이 저세상에 도달하면, 불행하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할 때까지 그들은 축복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세상에서도 자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문제를 가르칠 수 없고 이를 위해 그들을 도우려는 빛의 존재나 또는 이런 혼들을 돕기 원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혼들을 사랑으로 돕고 혼들에게 많은 빛과 힘을 전해주고 이 빛과 힘이 혼들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깨달음을 주면, 혼들이 저항하지 않고 듣게 만들고 혼들이 이제 더 이상 반발하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사랑과 긍휼을 구하게 만드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다. 혼들은 저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찾게 할 것이다. 그는 모든 혼들을 마중 나간다. 그러나 단지 그들이 그들의 강박한 저항을 포기하고 그들이 무기력하게 자신 주변을 바라보고 구원을 간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고 이제 그들을 돕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또는 이 땅의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중을 나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의 생각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진실로 그들이 그를 믿는 일이 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첫 걸음은 혼 자신이 옮겨야만 한다. 이제 혼이 이런 첫 걸음을 옮기도록 만들기 위해 이 땅의 사람들 편에서 또는 영의 나라의 빛의 존재들 편에서 혼을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나 또는 지속적인 가르침을 통해 혼에게 도움을 줘야만 한다.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에게 축복이 없다. 그러나 혼은 자신을 구속을 위해 도운 사람들에게 넘치게 감사할 것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이런 혼에게 저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큰 위험이 너희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땅에서 거론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로써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빛이 없이 영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하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 낙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은 단지 먼저 그들의 큰 죄짐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단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의 죄짐을 벗겨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깨닫고 인정해야만 한다.

아멘

예수님께 도피.

B.D. No. 7572

1960년 4월 10일



든 것을 이해하는 예수님께 너희의 모든 염려를 드러라. 그가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갔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인간으로써 그가 믿고 신뢰하

는 가운데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도움을 청한 자신의 이웃을 도운 것처럼 그는 너희에게 조언하고 도와줄 것이다.

왜냐면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를 신뢰하면, 너희가 피하게 해줄 수 없는 불행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 예수의 겉형체 안에서 이 땅의 과정을 거친, 모든 권세를 가진 영의 나라와 같이 이 땅에서도 사랑과 지혜로 역사하는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이다.

너희가 예수를 부르면, 영원한 창조주이면 유지자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너희가 한때 인정하길 원하지 않았던 분을 이런 긴밀한 기도를 통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그에게 돌아가야 하는 분을 부르는 것이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예수에게 가라. 그러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귀환하는 길에 있는 것이다.

그는 너희의 한때 타락했던 큰 죄짐을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는 이 역사를 인간 예수 안에서 완성했다. 그는 인간 예수의 육체의 겉형체를 자신이 거할 장소로 택했다. 왜냐면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인류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드러졌던 어떤 공황의 역사보다도 가장 큰 공황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았다. 왜냐면 영원한 사랑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를 전적으로 모두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끔찍한 고난의 길을 갔다. 예수는 이런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은 은혜를 통해 포로상태에 자유롭게 해줄 구세주가 오기까지 종으로 가두고 있는 주인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게 사람들을 구매했다.

그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죄값을 지불했다. 이제 예수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의 은혜의 동참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다. 이를 인정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벗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의지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너희가 한때 거부했던, 이로써 깊은 곳으로 타락했던 너희가 이제 다시 그의 사랑과 공황을 영접한다. 너희는 스스로 염려하면서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항상 예수께 드러야 한다.

너희는 모든 안건을 그분께 드러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그가 너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수 안에 거한 아버지와 너희를 연결을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부름으로써 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하나님께 귀환을 이룬다. 이런 귀환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이다.

절대로 혼자서 너희의 이 땅의 길을 가지 말라. 항상 예수와 연결되려고 하라. 그를 너희의 동행자로 너희의 인도자로 너희의 조언자요 보호자로 택하라. 모든 세상적인 영적인 위험 가운데 그와 연합이 되어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올바르게 인도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의 보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가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거쳤고 그가 진실로 이 땅의 사람이 견뎌야만 하는 모든 고난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도울 자세가 되어 있다. 왜냐면 그는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자신의 피조물인 너희를 항상 그의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는 그의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고 너희가 다시 그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를 사랑으로 뒤따른다. 그는 너희를 다시 영원히 얻기 위해 너희가 그에게 믿는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행할 것이다.

아멘